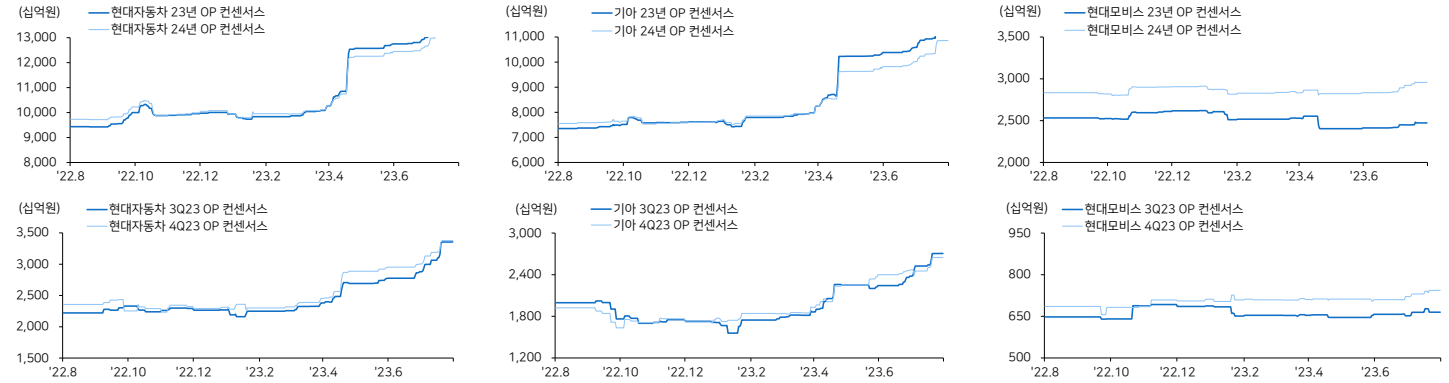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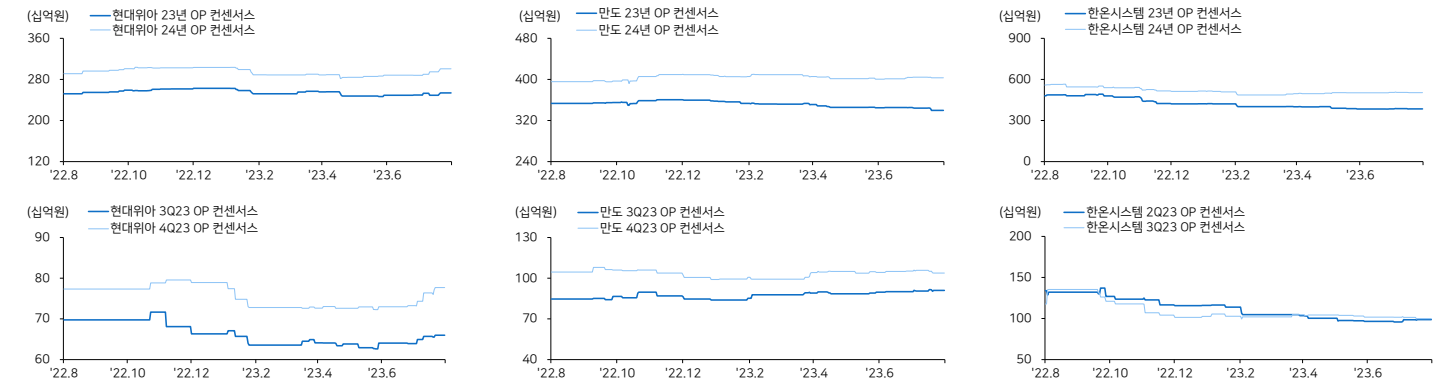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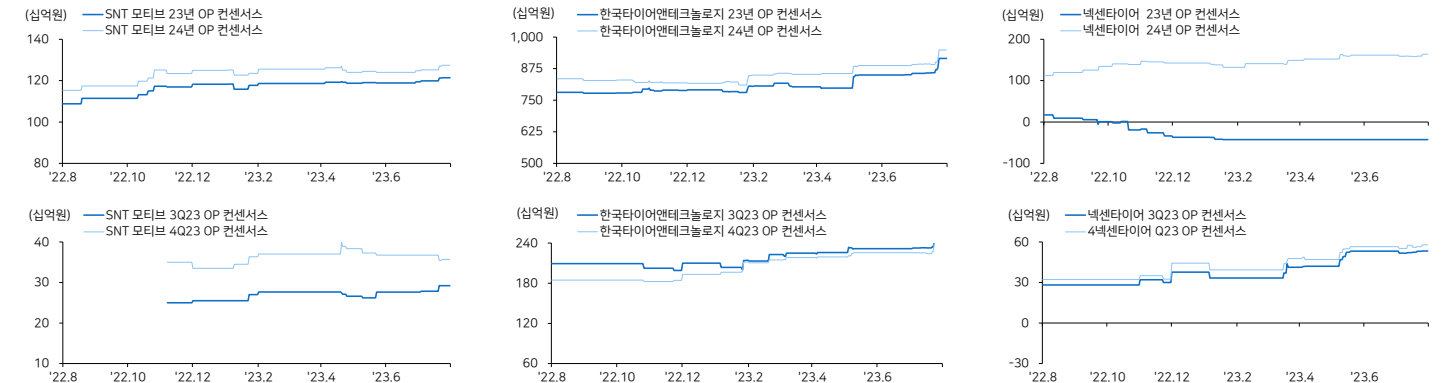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완성차 업계 "이러다 구글자 달라... 독자 OS만이 살 길" (한국금융뉴스)

VW(VW.oss), GM(알티파이) Toyota(아린OS), 현대차(ccos) 등,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독자 개발에 나선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https://han.gl/MGXky>

Tesla Welcomes New CFO to Replace Zach Kirkhorn (Tesmanian)

Tesla는 Zachary Kirkhorn에서 Vaibhav Taneja로 CFO를 교체하며 리더십 팀에 변화를 준 것으로 알려짐. Tesla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양식에 2023년 8월 4일부터 최고회계책임자 Vaibhav Taneja를 새로운 CFO로 임명했다고 공개함
<https://han.gl/eCGLli>

CATL to release new product on Aug 16 (CnEVPost)

업계에 따르면 CATL은 8월 16일 온라인 생중계로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CATL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고속 충전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제품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함
<https://han.gl/jnjytf>

중 전기차 판매량 '고공행진'...부동의 테슬라 (디지털투데이)

7월 중국에 등록된 BEV는 47만대로 25%의 점유율을, PHEV는 24만4000대로 13%의 점유율을 기록함. 모델별로 상위 5대 중 4대는 전기차로 나타났으며 테슬라 모델Y, 비야드(BYD) 송, 킨(Qin), 유안(Yuan) 순위로 업계계
<https://han.gl/NERjya>

인도 MSIL, 전기차 시장 '두각'... '2031년까지 해외 판매량 3배' (디지털투데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루티스즈키(MSIL)는 오는 2031년까지 해외 판매량을 80만대로 3배 늘리고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도 확장할 계획임. RC Bhargava 회장은 연간 약 400만대 생산을 목표로하며 2024년 첫 EV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힘
<https://han.gl/hCSjxv>

Tesla is an Example in Doing Business, Says Malaysian Prime Minister (Tesmanian)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Tesla를 언급함. 총리는 최근 Musk와 회담 이후 Tesla의 말레이시아 본사 설립 과정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밝힘
<https://han.gl/nMFAoJ>

Japan Plans To Improve Its Fast Charging Infrastructure (InsideEVs)

일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30년까지 1)고속도로 휴게소의 충전기 출력력을 현재 평균 수준인 약 40kW에서 90kW로 두 배 이상 높일 것과 2)고속도로 44마일 (70km)마다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을 밝힘
<https://han.gl/mdQAMZ>

EV maker Lucid sticks to annual production roadmap (Reuters)

Lucid 그룹은 공급망 우려와 분기 매출 부진에도 연간 생산 목표 1만 대 이상을 달성 가능할 것이라 발표함. Lucid의 2분기 인도량은 1,404대로 이전 3개월과 변동이 없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생산량은 1분기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https://han.gl/PymaKd>

송호성 기아 사장 "중국, 절대 포기 없다" (더구루)

업계에 따르면 송호성 기아 사장은 최근 중국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주도적이며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 밝힘. 장기간 판매 부진에 따른 현지 철수설이 오해를 듣기 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https://han.gl/HCQ8mk>

현대차·기아, 저가형 전기차 시장 도전...캐스퍼 EV·레이 EV·EV3까지 줄줄이 출시 준비 (CsNews)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캐스퍼의 전동화 버전인 캐스퍼 EV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하반기 들어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며 캐스퍼 EV·레이 EV 등의 경쟁 전기차는 물론 소형 전기차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전략
<https://han.gl/uuqwljy>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